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제 1독서]** 사도 5, 12-16  
**[화답송]** 시편 118(117), 2-4, 22-24, 25-27 ~ (◎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변명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여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제 2독서]** 요한 1, 9-11 ~, 12-13, 17-19  
**[복음 환호송]** 요한 20, 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성가	8시 미사	입당 136	봉헌 25	성체 170	파견 134
	11시 미사	입당 129	봉헌 211 217	성체 160 174	파견 139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2주일/자비주일(4월 7일)		부활 제3주일(4월 14일)		부활 제4주일(4월 21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글라라(순희)	전베로니카(진영)	이바오로(명국)	이엘리사벳(자영)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허라우렌시오(순구)	최분도(환준)	김길베르토(광호)
제 2 독서	정스텔라(애리)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허파비올라(옥진)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솔직하게 삼시다!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접한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주님부활을 사실로 믿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전하는 복음서 이곳저곳에서는 바로 그런 제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가감 없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솔직한 반응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부활의 진실성을 더욱 더 확증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부자연스럽고 왠지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들은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매우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토마스 사도의 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신 다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토마스 사도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라고 증언했지만 토마스는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요한20,25)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의 반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실망스런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는 토마스 사도의 이런 솔직한 태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토마스는 매우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의심이 많다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못하면서도 믿는 척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보단 오히려 백 번 천 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토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대리만족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토마스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속 시원하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바로 그런 점들이 예수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예수님께서

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토마스를 위해서 여드레 뒤에 다시 한 번 그에게 나타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한 토마스는 드디어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가끔씩은 하느님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평범하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가 감히 토마스 사도에게 의심이 많다고 추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솔직함과 용기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제대로 믿지 못하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적당히 믿고 있는 척하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토마스 사도처럼 모르면 모른다하고 의심이 가면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그 의심을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솔직함은 가장 용기이며, 은총입니다. 매일 솔직하게 삼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청소년부 안내

### 1. 부활 제2주일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

### 2. 교사 소개 : Andrew Choi 선생님(5<sup>th</sup>/6<sup>th</sup> grade)

Hi my name is Andrew Choi and I the fifth and sixth grade's Sunday school teacher!!! I became a Sunday school teacher because NCKCYM(Summer Camp committee) has been a big part of my life. I honestly don't know where I'd be if it wasn't for the NCKCYM community. It has changed my life for the better and I know that for sure. Back when I was younger, I had little interest in what the church had to offer except to meet friends. As I grew older with my friends, I unknowingly learned lots and lots about the bible and how our father had been always helping us through life. This is why I and Eric Cho, my co-teacher, believe in making the Sunday school experience be not only biblical knowledge but also fun. Our goal is to help them connect with our own class and with other students outside of our class so they can help each other in the future spiritually and religiously.

### 3. 영어미사 독서자 모집(1~8학년)

- 1학년에서 5학년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은 주일학교 교사 혹은 청소년 부장에게 해주십시오.

### 4. 교사/보조 교사 모집(2013년 가을학기)

- 모집 대상 : 학부모님, 대학/대학원생(비영어권)
- 초등학교 저학년 반(Pre-k 반, Kinder-1학년 반) 우선 모집 0명
- 청소년부장에게 연락주세요.  
sjbaek(at)gmail.com

### 5. 주일학교 소식지 인터넷 주소

- <http://goo.히/x8azm>

### 6. 영어미사는 Kindergarten 학생부터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pre-K는 주일학교 후 부모님이 데리고 가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 11시 미사 후에 바로 성당을 떠나셔야 한다면, 아이들을 차라리 미사에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주일학교와 미사를 함께 참석하지 못할 바에야, 주일학교보다 미사 참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babysitter가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보지 않고도 믿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초대 신자 공동체에서 사도들은 ‘많은 표징과 이적’ 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전합니다.(제1독서) 이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났기에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으로, ‘부활’ 로 이어진 것입니다. 토마스 사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요한 20,19)하고 인사하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서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마다했던 것 같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에 돌고 돌아 예수님이 라자로를 살리려고 유다 땅으로 가시려 할 때, 스승을 기꺼이 따라나섰던 제자가 바로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요한 11,16)라고 말하면서 머뭇거리던 다른 제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토마스는 스승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충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승의 비참한 죽음에 더 크게 상심하여 두문불출했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으려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남다른 충정 때문에 크게 상심한 제자를 남다른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드레 뒤에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은 토마스가 원하던 대로 해 주십니다. 그러자 토마스는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토마스에게 믿음의 걸림돌을 치워줍니다. 동시에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굳건하게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고 의심을 극복한 토마스는 주님을 증거하는 데에 일생을 바칩니다.

우리 역시 토마스처럼 하느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혹은 너무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증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하지만 그런 징표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신다면 과연 선하고 전능하신 분인지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 ‘죽었지만,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분’ (제2독서)께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태양이 비치지 않을 적에도 태양을 믿게 하소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적에도 사랑을 믿게 하소서. 하느님이 보이지 않을 적에도 하느님을 믿게 하소서.”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  
서울대학교 사목국장

**교황님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 성소**  
**많은 젊은이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여 사제직과 수도 생활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선교 지향 : 그리스도, 아프리카인의 희망**  
**아프리카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고한 희망의 표정으로 받아들일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의 향기

시카고에서 만난 주님

2009년 가을, 가수 활동을 접고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몸담았던 연예계를 떠나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 설레기도 했지만, 사실 두려움이 컸습니다. 익숙지 않은 나라와 언어,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랜 경험으로 익숙한 무대를 떠나 백지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법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로스쿨 입학 후,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두려움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저보다 공부에 훨씬 익숙한 학우들 사이에서 무대를 누비던 경험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고 언어 장벽도 컸으며, 무엇보다 감성이 풍부한 저에게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법의 세계는 낯설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첫해인 로스쿨 1학년 시기는 가족과 친구 없는 추운 도시에서 화려했던 지난날들을 그리워하는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지요. 하지만 힘든 유학시절이 제게 준 큰 선물이 있습니다. 혼자와의 싸움이 가장 컸던 3년이었지만,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느님께서 저와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일주일 전, 학교 친구와 우연히 알게 된 St. James 성당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대부분 로스쿨과 의대학생들로 구성된 성당에는 친구 같은 할아버지 신부님 두 분과 피아노를 치면서 성가대를 이끄는 할머니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이상형을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 것처럼, 이곳은 저를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난 후, 수녀님을 찾아가 성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그날을 시작으로 시카고를 떠나는 날까지 성가대를 이끄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노래로 봉사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없이 외롭게 지내던 저에게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로스쿨 생활을 하면서 힘겨울 때마다 성당을 찾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반겨주는 신부님들과 성당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매주 신부님의 강론 준비를 위한 토론 모임에 참여했고, 중요한 시험, 모의재판, 면접이 있을 때마다 “제 머리를 축복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저에게 신부님은 애정 어린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편안하고 익숙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힘들지 않게 일을 할 때와는 달리, 주님은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제 곁에서 너무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낯선 유학생이던 저는 어느새 그곳에서 제 역할을 만들고, 우정을 쌓고, 국적과 언어, 피부색이 다르지만 하느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고 가까워진 시카고 가족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또 다른 주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곳 뉴욕에서도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얼굴을 제 주변의 모든 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소은 마리아 가수, 변호사

**\* 4월의 성인**

스테파노, 길베르토, 프란치스코, 베네딕토,

이시도로, 알베르토, 마리아크레센시아, 가타리나

마르첼리노, 율리아나, 티모테오, 클레멘스, 야고보

프로코로, 에제키엘, 필립보, 다미아노, 파필로

돔니나, 람베르토, 막시모, 베르나르도, 발레리아노

발레리아, 안토니오, 아나스타시아, 테오도르

바시오, 체칠리아노, 펠릭스, 로베르토, 마르치아노

아녜스, 실비오, 아나니아, 아나스타시오, 레오

루카, 그레고리오, 피델리스, 마르첼리노,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몽포르) 치릴로

라우렌시오, 소피아, 발레리코, 빅토르

#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 간다는 것은

## 무슨 의미인가요?"

백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삶의 최대의 두려움! 우리가 풀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죽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죽음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죽음은 생명에 종지부를 찍어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성체성사를 통해 부활하신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시며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십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994항)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종착역이 죽음에 멈추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지금의 생명에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삶이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지상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이 ‘어떻게?’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으로, 신앙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000항)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자연의 질서 속에 심어 놓으신 지혜를 통해 보다 높은 생명의 단계를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지니고 땅에서 생애를 보내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거자씨가 우리 신앙고백과 믿음 속에 뿌려졌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뿔뿔히 동물에게 먹히는 변화를 거쳐 활동적인 생명에 결합하고, 동물은 자신의 육신을 인간에게 먹히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이성적이고 지적인 생명과 결합하는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관통할 때 우리는 생의 기쁨을 노래할 것입니다.

생명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지만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명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는 식물이나 동물보다 훨씬 고귀한 생명과 하느님의 모상을 받았습니

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요한 11,25-26)

※ 참고 : 가톨릭교회교리서

646-650항, 654-658항, 994-1003항, 2796항

사목국 연구실

죽음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들어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17,3)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악마를 파멸시키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

날짜	지향	봉헌자
4월 7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서라이문도	유데레사
	연 최마틸다	한발레리아
	연 송정숙	강그레이스
	연 서종구	서데레사
	연 채다니엘(인국)	유데레사
	연 최베드로(휘종)	유데레사
	연 송토마스(태완)	안마리아(은순)
	연 송소피아(성은)	안마리아(은순)
	연 안안나(옥순)	안마리아(은순)
	연 Fr. William Brand	김데레사
	연 유조형/오옥희	김데레사
	연 유베드로/F. 하비에르	김데레사
	연 이베드로(관종)	가족
	연 박마리아(희원)	가족
	연 이요한(갑희)	가족
	연 김제이슨(재성)	이요한
	연 이세림	가족
	생 본당신부님	임루시아
	생 새영세자들	김데레사
	생 안나회원들 건강	안나회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한울리안나(혜정)	10구역원
	생 조로사(정아)	조요안나(우송)
	생 남다데오/이비시아	남수산나
	생 자손들 가정	남수산나
	생 남콘솔시아/남연주	남수산나
	생 유헤레나	전례성가대
	생 이카타리나	전례성가대
	생 이아네스	전례성가대
	생 정안드레아(일양)	양요한(우선)
4월 9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연 서라이문도	가족
	생 정안드레아(일양)	성경백주간성자반
	생 한울리안나(혜정)	정안드레아(일양)
4월 10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4월 11일 목	연 서라이문도	가족
4월 12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4월 13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서라이문도	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	416	-	416
헌 금	-	\$3,688	-	\$3,688

< 교무금 > \$1,275

강수영(3) 정경희(1-4) 이정연(4) 조우송(4)  
최옥경(1-3) 유관덕(1-3) 강선미(1)

< 성소후원금 > -

< Bishop's Appeal > -

< 부활초/꽃봉헌 > 유춘성 \$100

< 성목요일-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 > \$831

< 성금요일-성지복구를 위한 헌금 > \$902

< 부활성야 > \$1,888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0,715.28	-	\$310,715.28
봉헌금	\$291,245.28	-	\$291,2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4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 새로 오신 분 ☞☞☞☞

\* 9구역

최순일/김옥순 가정 ☎ 925-459-0893

\* 버클리

권보미 엘리사벳 가정 ☎ 510-717-8849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여행자를 위한 안수기도 : 오늘 미사 중

◆ 자비주일 고해성사

4월 7일(오늘) 미사 30분 전

◆ Rice bowl 봉헌 : 성당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요아킴/안나회 : 4월 7일(오늘)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 본당 ME 모임 : 4월 7일(오늘) 오후 1시 107호실

\* 구역장회의 : 4월 14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장학위원회 : 4월 14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프란치스코 모임

일시 : 4월 20(토) 오후 6시

장소 : 26645 ChiPlay Ave. Hayward, CA 94545

☎ 510-566-2175/510-789-3949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4월 구역모임 **지에서 17-18장**

오클랜드	4월19일(금) 6시	정태준 안토니오 덕
------	-------------	------------

◆ 신앙의 해 스티커 배부

각 가정의 차량 수만큼 '신앙의 해 스티커'를 성전 입구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탈착하기 쉽도록 필름으로 제작하였으며, 차량 내부에 부착하시면 바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 Hair Cut 봉사자께서 도네이션 받으신 \$257을

빈첸시오회에 봉헌해 주셨습니다.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자격 : 북미주 거주 한인 가톨릭 학생(고등학교 12,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

신청마감 : 5월 31일

신청서 다운로드 : FIAT 웹사이트([www.flat.org](http://www.flat.org))

신청문의 : [fiat@fiat.org](mailto:fiat@fiat.org), 714-702-9830